

<동정자료>

## 김현미 장관 ‘피해상황 면밀히 살펴 필요시 복구대책 즉시 추진’ 지시 24일 서울역 찾아 각SOC별 태풍 대응현황 및 전국 철도 운행 비상체제 점검

□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24일(금) 서울역을 방문하여 제19호 태풍 ‘솔릭’의 한반도 상륙에 따른 국가 주요 SOC별 대응상황을 점검했다.

□ 먼저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영상회의를 통해 국토부 소관 SOC별 상황반\*과 5개 지방국토관리청의 대응 상황을 보고 받고, 고도의 긴장감과 국민들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빈틈없는 대응 체계를 유지하면서 피해 발생 시 준비된 대책을 즉시 실행할 수 있도록 만전의 대비를 할 것을 강조하였다.

\* 홍수종합통제반, 도로반, 철도반, 항공반으로 구성

- 또한, 국토부 관리 시설물이 아니더라도 피해 가능성이 높은 공사 현장과 소규모의 지자체 시설 또한 태풍이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피해 발생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신속한 파악과 지원을 지시하였다.
- 특히, 지방국토관리청에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피해현황을 면밀히 살펴 요청이 없다 하더라도 인접한 국토사무소에서 장비·자재·인력 등을 최대한 지원하여 줄 것을 지시하였다

□ 이어 김 장관은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를 찾아 전국철도 운행상황과 각 지역본부의 대응상황도 점검했다.

- 김 장관은 국민의 안전은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목표이며, 태풍 피해상황 발생 시 규정에 따라 열차 속도제한 및 운행 일시 중지도 고려하여 국민안전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하였다.

- 다만, 이러한 경우에도 연계수송 및 구축된 연락운송체제를 즉시 가동하여 국민의 이동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.
- 또한, 김 장관은 태풍 솔릭의 경우 강한 비바람을 동반하고 있으므로 철도시설물 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.
- 신호주, 표지류, 방음벽, 지붕 등을 집중 점검하여 강풍으로 인한 추락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하였다.

2018. 8. 24.

국토교통부 대변인